



열여섯번째 이야기

시편(Psalms) 세미나를 마치고



지난 5월 20일-27일, 상도동 BEE 센터에서 알 브리지스(AI Bridges) 선교사님의 인도자 대상 시편 세미나가 있었다. 선교사님과의 교제와, 세미나를 통해 얻은 은혜와 유익을 나누고자 한다.

교사와 인도자

이번 시편세미나는 참석대상이 인도자(facilitator)였다. 사실 인도자라는 말은 다른 성경공부나 세미나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BEE에서는 왜 이 단어를 사용할까? BEE세미나에는 교사(Teacher)와 인도자(facilitator) 그리고 학생이 있다. 교사는 누구일까? 바로 BEE교재다. 성경에 충실한

BEE 교재가 학생들의 교사라면 인도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재를 그들의 교사로 여기도록 돕는 일이 아닐까? 궁극적 교사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주님이시다. 주님이 BEE 교재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그 일에 나도 BEE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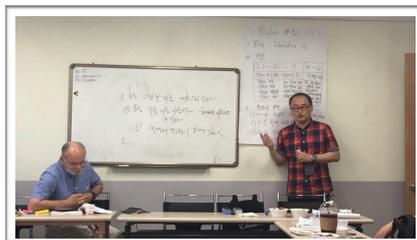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시편이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탄원들이 나오지만 슬픔이나 두려움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시편은 사랑과 성실하신 하나님에 근거한 궁극적 소망과 간구들로 고백되고 있었다.

예전에 90세가 넘으신 한 필리핀 분을 손녀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필리핀에서 한국에 모셔드린 적이 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공항에 배웅할 때 그분이 나를 한적한 곳으로 부르더니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든지 하늘을 보라.”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그분의 고백이기에 나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 “Look at the sky.” 물론 하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다윗은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시27:14)”라고 말한다. 이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다. 다윗이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늘 그의 인생에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도 뒤돌아보았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진정 내 인생에 있었는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 자체가 가장 대표적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실하심이다. 놀랍게도 지금 목사로 살아가고 있다. 주의 은혜와 역사들을 생각해보니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글로 쓰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까지는 아니더라도 노트 몇 권은 될 것 같다. 내일은 하늘을 오랫동안 봐야겠다. 하늘을 바라봐야 할 이유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내게 주소서

시편에서는 많은 탄원들이 나온다. 위기가 오면 사람은 두려움, 불안감, 좌절, 괴로움, 걱정, 염려, 슬픔 등 여러 부정적인 요소로 마음이 채워지는데 시편저자는 주님의 임재와 친밀한 교제를 사모했다.

20대 초에 찬양과 예배에 깊은 은혜를 경험한 어느 청년의 간증이 생각난다. 그는 주의 임재를 생각해보니 돈으로도 살수 없고,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평생에 돈도, 명예도, 권력이 없어도 좋으니 이 한가지 일, 곧 예배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나 잃어버리면 자신을 치셔서라도 다시 이 예배의 마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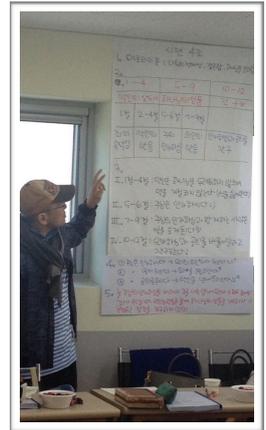
다윗은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시편27:4)”

요즘 척박한 이 땅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의 꿈이 로또 당첨이라고 한다. 나도 오직 한가지 일, 이것 하나만큼은 들어준다면 로또 당첨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다. 오직 이것 하나 만큼은 내게 주소서 기도했던 ‘예배의 기쁨’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오늘도 간구한다. 주님 이 기도를 응답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집중하기

시편은 5권의 책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권마다 다윗의 언약 속에 나타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반복되어 나온다. 시편 22편은 이사야 53장과 더불어 고난 받는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으며,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초점을 맞추며,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그렇게 함으로 온 우주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5월초 All & One 수련회에서 ‘집중’에 대한 조문상선교사님의 강의가 있었다. 복음과 영혼구원과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시편 기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이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으며 영광을 돌리는 일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나는 집중하고 있는가? 그냥 바쁘게 살기보다, 내가 예수 안에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시편 세미나를 통해 모두에게 은혜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알 브리지스 선교사님과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귀한 기도와 손길에 감사를 드린다. (글:한준열, 편집:이경주)



글쓴이 한준열목사는 1971년생으로 현재 BEE본부에서 훈련선교사로 섬기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만난 아내와 아들 규현(9세), 딸 규은(5세)가 있다. 가족 모두가 선교사가정으로 잘 준비되어 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BEE 소식

- 6월에 "찾아온 사랑을 찾아서" 세미나와 탐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 6월에 인도네시아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